

令和 6 年 度

前 期 日 程

韓 国 語 問 題

(注 意)

1. 問題冊子及び解答用紙は、試験開始の合図があるまで開いてはいけない。
2. 受験番号は、各解答用紙の受験番号欄に正確に記入すること。
3. 問題冊子のページ数は、表紙と白紙を除き5ページである。脱落している場合は直ちに申し出ること。
4. 解答用紙は表紙を含めて5枚である。
5. 解答は、解答用紙の指定されたところに記入すること。
6. 問題冊子の余白は、適宜下書きに使用してよい。
7. 解答用紙は持ち帰ってはいけない。
8. 問題冊子は持ち帰ること。

I. 次の文章を読んで、後の問いに答えなさい。

명성황후(明成皇后)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알려져 있는 듯하지만, 그 대부분은 명성황후의 실제 모습에 풍문과 상상력이 더해진 것이다. 명성황후에 대한 자료에는 황후와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이들 사이에 떠돌던 이야기들과, 머나먼 외국에서 건너온 이들의 조선 황후에 대한 호기심어린 눈길도 포함되어 있다. 아니면 조선 왕조의 충실한 기록 시스템에 의해 후세에 남겨지도록 의도된 공식기록들 뿐이다. 명성황후 관련 기록에는 어디에나 제삼자의 시선이 담겨져 있다.

그러다 보니 명성황후의 인간적 모습보다는 각색된 황후의 모습으로 더 많이 기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역사에서 한발 물러선 황후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권력, 정쟁, 외교 등의 남성적 수사만이 황후를 설명하는 언어로 남아 있다. 반면에 황후도 여성이자 아내였고 어머니였다는 사실은 거의 기억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명성황후에 대한 기억이 단편적이라는 것은 조선 왕조 말기의 역사적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명성황후가 살던 왕실은 조선의 문화가 집약된 곳이었다. 그곳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수많은 문서와 기록이 남겨지던 곳이다. 명성황후 역시 스스로 많은 기록을 남겼을 것이지만, 현재 명성황후가 직접 남긴 자료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실제로 고종(高宗)이 지은 명성황후의 행록(行錄)에 따르면, 황후는 어려서부터 부친인 순간공(純簡公)으로부터 글을 배웠는데 두세 번만 읽으면 바로 암송할 정도로 총명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때문에 명성황후 본인이 남긴 자료가 발견되고 정리된다면, 다른 이들에 의해 알려진 내용보다 실제적인 황후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다행히도 명성황후는 민씨가(閔氏家)의 일원들과 많은 서신을 왕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가운데 몇몇 자료가 소개된 바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명성황후가 1894년 음력 7월 28일에서 9월 22일 사이에 민응식(閔應植)과 그의 아들 민병승(閔丙承)에게 보낸 편지 10통이다. 이들 편지는 정병욱 교수에 의해 해제되어 『문학사상』 1974년 10월호에 수록되었다. 하지만 후손가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이 편지들은 미국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여 실물을 찾아볼 수는 없다.

이러한 편지들 이외에 근래에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소(閔泳韶)의 후손가에서 명성황후가 보낸 편지들을 공개하였다.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는 2점이 일제시기 수집되었고 이를 찍은 사진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 이외에 명성황후의 친필 한글 편지가 새롭게 알려진 것이다.

이러한 명성황후 편지에는 황후가 친정 식구인 민씨가(閔氏家)에 보낸 개인적 부탁과 왕실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어 편지가 지닌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충실히 해석하고 명성황후의 친필을 직접 소개하는 것은 명성황후와 조선 왕실의 마지막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中略)

편지의 내용을 통해 확인된 명성황후는 황후에 대한 강인한 인상과 달리, 끊임없이 질병에 시달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명성황후가 주로 호소하는 병은 각통(脚痛)이나, 체했거나, 두통, 복통, 해소, 각기병, 심신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명성황후는 특히 담체(痰滯)를 많이 호소하여, 담에

결렸던 것을 알 수 있다. 편지에는 담으로 인한 고생에 대해 “나는 그동안 담체(痰滯)로 정신없이 다니다가 어제 오늘이야 조금 나흐나 시원치 아니하니 괴롭다”라고 하여, 평소에도 상당히 괴로웠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명성황후는 자신의 질병은 아니지만 민영소 집안의 아이인 충경의 질병에 양의(洋醫)를 데려다 보이라는 내용을 편지에 쓰고 있어, 질병을 고치는데 서양 의학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명성황후의 이러한 질병은 실제적인 질병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지위 및 시대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보인다. 명성황후는 실제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괴롭다는 내용을 편지로 보낸 적도 있고, 계절의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기후에 따라 신체 및 감정의 변화가 심했다. 원래 명성황후는 스스로 황후가 되리라 생각지도 못했고 실제로 통치를 위한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구한말의 정치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인물이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황후로서의 삶도 순탄치 못했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명성황후를 직접 접견한 외국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명성황후의 창백함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Isabella Bird Bishop은 “매우 멋있어 보이는 마른 체형이었으며 머리는 윤기가 흐르고 칙흑같이 검었으며, 얼굴빛은 상당히 창백했는데 그 창백함은 진주빛 분을 발라 더욱 희게 보였다”라 하고 있다. Underwood 여사는 “약간 창백하고 아주 가냘프며”라 하고 있다. 모두 명성황후의 창백함을 지적한 것이다. 용모에 대해서도 후덕하기 보다는 말랐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마 명성황후는 선천적인 탓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다소 마르며 날카로운 인상을 지녔던 것으로 추정된다.

명성황후는 질병에 시달리고 국내외의 불안정한 정세에 따른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무속인에게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무속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자료에 “남정식이다려 명년(明年)의 우회서 질역(疾疫)이 금년(今年) 슈(數)와는 엇더신가 무리보고 무슨 일이 언제 즈믄 잇스며 엇지하면 방익(防厄)이 될가 즈시 아라보고”라 되어 있다. 남정식에게 내년엔 임금께서 질역(疾疫)이 올해의 운수와는 어떠신가 물어보고, 무슨 일이 언제쯤 있으며 어찌하면 방익(防厄)이 될까 자세히 알아보고 오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정식이 무속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성황후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니일 피접(避接)으로 만경전(萬慶殿)으로 가라”라고 하여 만경전으로 피접하러 가기도 하고, 녹용과 삼편(蔘片) 등을 복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통해 확인된 명성황후의 모습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역사적 격변 속에서도 일국의 황후로서 비교적 화려한 생활을 영위했을 것으로 예상된 명성황후가 실제로는 질병과 불안이 지속된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기대 편지 (2007) 『명성황후 편지글』, 도서출판 다운샘】

問 1. 明成皇后本人が残した資料にはどのような価値があるのか、200 字程度の日本語で説明しなさい。

問 2. 手紙から明らかになる明成皇后像はどのようなものか、200 字程度の日本語で説明しなさい。

Ⅱ. 次の文章を韓国語に訳しなさい。

①

飯能で吾野行に乗換えて、三つ目が高麗駅であった。改札口を出ると、すぐその井戸端に天下大將軍と地下女將軍が並んで立っていた。あっと思いながら私は將軍たちの前へ吸いつかれていった。

何時のことだったかははっきり覚えていないが、とも角幼い日の、或る夕暮れ時、薄暗い山陰でばったりこの天下大將軍と顔を合わせたことがあった。曲った丸木の頂に彫られた顔が、意地の悪い眼で睨みつけるので、ぞっとして顔を伏せたまま、身動きもならない恐怖を覚えた。

それ以来、暗い路傍を通る時はきつと眼をつぶることにしていた。そして遂に二度と本ものの天下大將軍に行き会う機会もなくすごしている。ただ書物の挿画や絵はがきで、見るだけなので、何うにかしても一度実物を見たいと考えていた。それが今、思い掛けなくこの武蔵野の一角で再会したのである。

丹青も新しく、立派な角材に彫ったこの天下大將軍は、私が幼い日に行き会った將軍に比べていやらしく凄くもないが、懸命に軋めて悪魔を睨んでいる眼にも、大きな口許にもどことなく人懐っこい情が湛うている。

とも角、長い間待侘びていたものに会っただけでも、ここの土地と私とが深い因縁で結ばれていることがはっきりわかった。

【張赫宙 (1943)「岩本志願兵」『コレクション戦争と文学 17 帝国日本と朝鮮・樺太』, 集英社(2012)】

②

朴正熙政権による韓国軍のベトナム派遣や経済協力方式による日韓国交正常化は、先行研究の指摘通り、慰安婦や徴用工といった被害者の救済を後回しにしたことは否めない。しかしそれ以上に、経済協力方式の国交正常化は、市場経済を重視した韓国の野党や世論を醸成し、経済政策からのみ日本を評価し批判する視点を作り出したと言える。日韓国交正常化の前後の期間で、選挙の不正や独裁といった韓国の国内政治体制の限界がいくらあったとしても、韓国の野党、新聞、国民世論は、なぜ経済構造からしか日本を語らなかったのだろうか。日韓経済協力委員会といった、既得権益層の中で決められた経済協力の枠組みが、「経済と日本」という視点をさらに強調したとは言えるが、既得権益層以外でも日韓の閣僚、与野党、被害者救済や民族教育の自由を主張する国民の層でさえも反共・対北朝鮮体制競争にまきこまれて、歴史問題を語り解決しようとする信頼関係の基盤を醸成できてい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日韓定期閣僚会議は、経済問題から議題の領域を広げた交渉の土台となり、定期的に交渉をする場として機能した。しかし、定期会議で韓国側から提起された北送問題や樺太在留韓国人の引揚げの問題は、日韓で意見の対立する案件として議題から除かれ日韓の外交問題としての設定に失敗した。そして意見の相違をめぐる日韓の外交交渉は公式会談で論じられる機会を失った。

【長澤裕子「日韓国交正常化後の両国交渉と歴史認識の外交問題化」
吉澤文寿編著『歴史認識から見た戦後日韓関係』, 社会評論社(2019)】

③

学校の門の前で待っていると、おかんが到着した。和髪が綺麗にセットされ、訪問着の着物姿もあでやかだが、車から降りるなり、眉間にシワを寄せながら、僕をうながして一目散に職員室へ向かった。

おかんは職員室に入るなり怒鳴った。

「おらー！ 中島出てこい！！！」

職員室中の先生が驚いておかんに注目する。しばらくして、中島先生が現れた。

着飾った着物でおかんは吠えた。

「なんでサインせえへんねん。しかもこの子のやっтерことが遊び言うたらしいな？」

すると、中島先生も喧嘩腰でおかんに言う。

「はい。こんな大事な時期におもちゃで遊ぶために海外に行くなんて副担任として許可できませんね。私は教師としての責任がありますので」

おかんは少し声を落として言った。

「そうか。お前にはこの子のやっтерことはおもちゃで遊んでるように見えるんやな」

中島先生は、おかんに説教めいた言葉を返す。

「あなたも母親らしく、お子さんのためにビシッと厳しく言ってあげたらどうですか」

おかんは僕目を見ながら言う。

「この副担任の言う通りやわ。だから今、あんたのためにビシッと言うたるわ」

中島先生の言う通り、おかんは僕に、アメリカに行くことを諦めるよう告げるのかと思っただ、おかんは中島先生に向かって啖呵を切った。

「おい。今から言うこと真剣に聞けよ。お前さっき教師としての責任があるって言うたな？ わしにはこの子の母親としての責任とプライドがあるんや。お前がどうしてもサインせえへんのやったら、この子の養育費とお前の家族全員の生活費を一生保証したるから、この子の面倒を一生見てくれるか？ 母親以上の責任がないんやったら今すぐサインしろ！」

中島先生は黙ったまま動かない。

痺れを切らしたおかんは

「さっさとサインせんかい中島！！！」

七三分けは同意書にサインをした。

それを見届けると、職員室を出る前におかんは中島先生に丁寧に詫びた。

「息子のためにお騒がせして申し訳ないです。息子のやっтерことが遊びに見えてるのでしたら、それはまだ息子の真剣さが足りないからかもしれません。それは母親である私の責任でもありますので、この子にはもっと努力するようお願いさせます」

前を歩くおかの西陣織の帯が揺れている。

将来、必ずプロのパフォーマーになる。

そう決めた。

【ちゃんへん、『ぼくは挑戦人』、ホーム社(2020)】

Ⅲ. 次の文章を日本語に訳しなさい。

①

청소를 하려고 연희의 방에 들어갔다가 해외 입양인들의 수기와 소설, 연구자들의 논문과 보고서 등으로 잔뜩 어질러져 있는 책상을 보았을 때 혜순은 망연자실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존 터너의 비극적인 삶이 안타깝고 슬프다고 말했던 연희가 그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쓰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

혜순은 딸이 해외 입양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작품으로 쓰려고 하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들의 삶을 감당해 낼 만한 경험이 없고 나이도 젊은 연희가 왜 하필 생부모에게 버려지고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추방되어 돌아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 인물에 몰두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서성란(2023) 「내가 아직 조금 남아 있을 때」 『2023 제 46 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

②

관용 표현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도 함께 이루어져야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 ‘국수를 먹다, 발이 넓다, 바가지를 긁다, 개가 쏘아지다’와 같은 관용 표현을 어휘의 순수한 뜻으로 해석한다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서 ‘국수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단순히 각 어휘의 뜻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음식으로서 국수를 먹는다는 의미밖에 없다. 그러나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결혼식에 온 손님들에게 국수를 대접해 왔기 때문에 ‘국수를 먹는다’는 표현은 결국 결혼식을 올린다는 뜻이 됐다는 것을 알려 주면 한국 문화도 이해하고 그 관용 표현의 의미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한재영 외 (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③

근대적인 문화 향유는 문자적인 데에서 시각적인 것으로 옮겨갔다. 근대기에 상륙한 영화는 당시 조선인들의 혼을 빼놓았다. 전문적인 영화 상영관이 세워지고, 미국영화와 일본영화가 판을 치는 가운데 조선영화도 상영되었다. 북촌에는 조선극장, 단성사, 동양극장, 우미관 등이 있었고 남촌에는 황금좌, 명치좌, 악초극장 등이 있었다. 1926년 〈아리랑〉의 나운규 감독의 출현은 당시 조선영화의 상징이 되었다.

공연예술은 근대식 극장을 통해 발전했다. 전통공연예술을 비롯하여 신무용, 신연극 등이 극장 무대에 올랐다. 구중심처의 아악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고, 최승희는 신무용으로 조선을 넘어 세계의 무희가 되었다. 진보적인 연극단체의 실험적인 연극도 경성의 공연예술의 한 부분이었다.

【서울역사박물관 (2013) 『600 년 서울을 담다 / 상설전시도록』】